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9호

Jeff Pippenger  
2026-01-14

## 29번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메시아 예언은 실망과 죽음의 이정표다. 2020년 7월 18일, 내슈빌의 파괴에 대한 거짓 예언이 엘리야와 모세를 죽였다.

### 제5 메시아적 이정표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이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울음과 큰 슬픔이라.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그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17, 18.

## 예측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쓰라린 통곡이라. 라헬이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자녀들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으니, 그들이 없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1:15.

모세와 엘리야는 소돔과 이집트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구약의 마지막 진술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임을 밝힌다. 그 두려운 날은 다니엘 12장에서 미가엘이 일어설 때 시작되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그 상태로 영원토록 머물 것이라고 선포된다.

그때에 네 백성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다. 그때에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네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엘리야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타나야 하며, 그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합니다. 그는 부활하여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 의인과 악인의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깨어나리니,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에 이르리라. 다니엘서 12:2.

그 특별한 부활 뒤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며, 그때 의인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어 성도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는 천년기가 있다. 천년기의 끝에 또 다른 부활과 그리스도의 세 번째 강림이 있다. 예언적 부활의 계열에는 교황권 짐승의 부활도 포함되지만, 각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각각 독립적인 주제다. 2020년 7월 18일, 14만 4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1844년을 넘어서는 시간 적용을 금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반역함으로써 자살했다.

그때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렸으니, 이는 교만과 자기 높임을 뜻한다. '좋은 여행자'라는 뜻의 라헬은 모세와 엘리야가 없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고, 성령은 위로자이시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2023년 7월에 시작될 때 보내어질 것이다.

이 일들은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일어나며,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린다. 그 봉인이 풀리는 일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는데, 그들은 또한 자녀들을 위해 울고 슬퍼하며 위로받지 못하던 선한 나그네 라헬이기도 하다. 그 자녀들이 부활할 때 그녀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10.

모세와 엘리야는 소돔과 이집트의 거리에서 죽어 있었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은 2023년 7월에 모임이 시작될 때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질 것이다.

### **여섯 번째 메시아적 이정표는 2023년 7월의 이집트로부터의 부르심이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 함이었다. 마태복음 2:15.

### **예측**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호세아 11:1.

이집트의 거리가 죽어 있는 가운데, 광야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목소리가 에스겔의 죽은 뼈들의 골짜기를 되살린다. 그 목소리는 2023년 7월에 들리기 시작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르시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매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바라보았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부르시고, 모세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이는 알파로서의 모세와 오메가로서의 예수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십사만 사천의 경험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 노래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에스겔에는 두 단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창조에서의 두 단계로 예표되었다. 먼저 몸이 지어지고, 이어 생기가 그 몸에 불어넣어져 살아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첫 번째 단계는 죽임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며, 그들은 이어 일어서게 된다. 그들이 일어서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11장에서 영을 전달하는 것은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성령이 동반된 예언적 메시지다.

마태복음에는 십사만 사천과의 언약을 대표하는 두 증인을 제공하는 창세기의 열두 장에 대한 오메가가 되는 열두 장이 담겨 있다. 그 남녀는 신성과 그들의 인성이 결합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십일시 일꾼들을 위한 표징이 된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구분선을 고상하고 숭고한 의미에서 드러내는 것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시험이 이를 때에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생각한 그 불법의 사람의 서명을 지니는 것이다.” Bible Training School, December 1, 1903.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4만 4천이 하늘로 불러 올라갈 때의 기치는,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인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이 열한시 일꾼들을 위한 표징이 되게 합니다. 그들의 2024년의 부활은, 어떤 비유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탄생으로도, 혹은 깨어남으로도 표현됩니다.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성취하는 자들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고, 그들이 곧 표징입니다.

### **일곱 번째 메시아적 이정표는 2024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2, 23.

### **예측**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14.

모세와 그리스도의 역사에도,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표적들이 있었다. 말세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표적을 구할 것이며, 그들의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2024년에 부활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도 있다. 그들의 표적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다.

이것이 네게 징조가 되리니, 너희는 올해에는 저절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그에서 돌아난 것을 먹으며, 셋째 해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가고 시온 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29-31.

너희가 만일 말하기를, ‘일곱째 해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으랴? 보라, 우리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소출도 거두지 못할 텐데’ 한다면, 그때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명하여 그 해가 세 해분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희는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아홉째 해까지도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그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저장분을 먹으리라. 레위기 25:20-22.

피한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로도 묘사되며, 그들을 미워하던 형제들에 의해 쫓겨났다. 그들의 형제들은 모세의 '일곱 번'이 나타내는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여 내쫓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시편 147:2.

주님은 2023년 7월에 남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다. 2023년 7월에 그분은 자신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려고 두 번째로 손을 펴셨다. 그분은 1856년에 있을 모세의 "일곱 때"의 오메가 빛에 앞서 1849년에 두 번째로 손을 펴셨다. 알파 빛은 밀리의 첫 번째 예언적 발견, 곧 모세의 "일곱 때"로 나타났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백성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곧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쫓겨난 자들이 표징으로 높이 들려질 때, 그들은 '오직 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보고서야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십일시 일꾼들을 모을 것이다. 십일시 일꾼들을 위한 표징은 쫓겨난 자들이며, 쫓겨난 자들의 표징은 다음과 같은 먹는 것에 관한 수수께끼다. "올해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그것에서 돌아난 것을 먹으며; 셋째 해에는 너희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본문의 수수께끼는 그것이 레위기 25장과 26장의 '일곱 때'를 나타낸다는 데 있다. 땅의 안식은 약속의 땅을 위한 제7년의 안식을 지키거나 거부함에 따라 복인지 저주인지를 식별하는 언약의 한 구성 요소이다. 십사만 사천의 표는 땅의 제7년 안식으로 대표되는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의 구성 요소이다. '일곱 때'의 근본 진리는 새 마음과 생각, 새 몸, 그리고 살아갈 땅을 약속하는 언약의 세 요소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제칠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지만, 그 제칠일 안식일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책임을 상징한다. 그들은 십계명의 수호자이자 보관자가 되어야 했다. 화이트 자매는 1844년의 현대 이스라엘이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보관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불러 세상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강력한 썩기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을 여러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당신 자신과의 거룩한 밀접함 가운데로 이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탁자로 삼으셨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땅의 길이와 넓이 전역에 걸쳐 경고를 울리기 위하여 그분의 대리자로 나아가는 백성을

나타낸다." Testimonies, volume 5, 455.

십계명은 제칠일 안식일이라는 표로 상징되고, 예언의 법칙들은 제칠년 안식년으로 상징된다.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주의는 변절하여 태양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크게 당혹해할 것이지만, 그들이 애초에 거부한 안식일 계명은 모세의 '일곱 때'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제칠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것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만, 이 성경적 진리를 반박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장차 기치가 될 자들을 내쫓게 만드는 그들의 증오의 뿌리다.

아버지 쪽 가족 대부분은 재림을 전적으로 믿는 이들이었고,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우리 중 일곱 명이 한때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했다. 이때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극히 귀했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였으나, 그분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66:5.

"이때부터 1844년 12월까지, 나의 기쁨과 시련과 실망은 내 주위의 사랑하는 재림 친구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무렵 나는 우리 재림 자매 한 사람을 방문하였고, 아침에는 우리가 가정 제단 둘레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모임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우리 다섯 명만 있었는데 모두 여자였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 속에 감싸였고, 땅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듯하였으며,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이 재림 백성이 거룩한 성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가 내게 보여졌다." 초기 저술, 13.

엘렌 화이트의 첫 번째 환상은 그들을 미워하던 형제들에게 쫓겨난 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상징하는 다섯 여인이 함께 모였을 때 주어졌다. 형제들은 재림의 교리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으며, 이는 말세의 쫓겨난 자들을 상징하였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유다처럼 우리를 가톨릭 측에 넘겨, 그들의 영향력을 얻어 진리를 대적하려 하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관습을 아는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그들은 안식일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였다)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가톨릭 측에 고발하여, 그들이 백성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무시한다고.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고, 개신교인들은 일곱째 날 대신 한 주의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다. 그리고 수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의 편에 설 것이다. 가톨릭은 그 권세를 짐승의 형상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성도들을 멸하려고 그들의 어머니가 앞서 행하던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칙령이 열매를 맺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스폴딩과 매건, 1, 2.

'명목상의'(이름뿐인) 재림교인들은 유다처럼 우리를 배신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안식일 때문에' 추방된 자들을 '미워했다'기 때문이다.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언하므로, 여기서 언급된

안식일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들은 추방된 자들을 미워하는데, 자신들이 모세의 '일곱 때'라는 근본적 진리, 곧 윌리엄 밀러라는 인물에게서 나타난 엘리야의 알파적 이해를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별을 주고 계시지 않다. 우리는 1843년과 1844년에 우리를 다른 교회들로부터 나오게 한 그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905년 1월 19일.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메시지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힘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21권, 437.

"우리가 1841년, 42년, 43년, 44년에 받은 진리들은 이제 연구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371.

"경고가 주어졌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이른 때부터 우리가 줄곧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 이래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여 세상 앞에 서 왔다.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으며 빛을 구할 때 우리의 발이 놓였던 그 기초에서 발을 떼어 놓을 생각은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주어진 때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Review and Herald, 1903년 4월 14일.

유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의 상징이 아니다. 유다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혼인하시려던 언약의 신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쫓겨난 자들을 향한 배신은 유다, 곧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게서 온다. 그들은 많은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에게 거절당하는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은 그 정결 과정에서 분리되고, 신실하든 불신실하든 그 수는 25명이다. 레위인들은 예전과 같이 봉헌되기 전에 미리 정결하게 된다.

그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롭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3, 4.

레위인들은 제물이다. 그들은 위대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스물다섯 명의 레위인들이 제물로 들어 올려질 때, 에스겔 8장에서는 스물다섯 명의 가짜 레위인들이 해에게 절하고 있다.

유다는 악한 레위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은화 서른 개가 상징하듯이 삼십 년 동안 준비된 악한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때에 그를 넘겨준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되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서른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가 말하였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지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라." 하니, 그는 성전에 은화를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3-5.

유다가 던져 버린 은 삼십은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찌꺼기(가짜 은)을 내쫓는(정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악한 제사장직은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1888년의 반역자들로 대표되었다. 땅의 짐승인 미국이 그 입을 벌릴 때 그 악한 제사장직은 삼켜진다. 그때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는 늦은 비의 완전한 쏟아짐 동안 불이 그들의 추종자들을 멸한다.

그리스도 당시 표적으로서의 동정녀 탄생은 말세의 슬기로운 처녀들의 표적을 상징한다. 그 시기에 산헤드린 공회, 즉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표적을 구하겠으나, 라오디게아에게 주어진 유일한 표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 곧 열한시 일꾼들에게 주어진 표적은 일요일법령의 시험 기간 동안 남녀가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옛 언약 백성과의 논쟁 속에서 남은 자의 표적은 안식년이며, 이는 하박국의 거룩한 두 표 모두에서 중심 기둥으로 식별된 바와 같이 재림교 신앙의 기초를 대표한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주어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대화에서 언급된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16:13-20.

산헤드린에게 주어진 표징, 곧 재림교에도 해당되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이다. 시몬 바요나는 이름이 곧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 본문에 등장한다. 아브람의 이름은 언약 체결 때 바뀌었다. 사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세 증거는 성경 인물의 이름이 바뀔 때 그가 언약의 사람을 대표하며, 따라서 마지막 언약 백성, 곧 14만 4천을 예표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또한 이 세 증거는 언약의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이 바뀐 사람과 관련된 예언적 상징을 나타낸다는 것도 확증한다.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자'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은 '작다'라는 뜻의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빼앗는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 의미하듯, 이름과 경험 모두에서 '이긴 자'로 바뀌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바요나였는데, 시몬은 '듣는 자',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를 뜻하며, 시몬은 그 비둘기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시몬

바요나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신, 그 기름부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요나의 메시지는 비둘기의 메시지였고,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때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을 상징했다. 요나의 메시지는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 사흘은 유월절부터 초실절까지의 사흘로, 그리스도의 세례와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때로 예표된다.

요나의 표징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때 기름부음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이는 9/11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는 것을 예표한다. 9/11은 요나의 사흘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의 시작이 되었다. 그 세 단계는 밀러주의 역사에서도 또한 나타난다. 1840년 8월 11일은 첫째 천사의 시험의 표징이 되었고, 1844년 4월 19일은 둘째 천사의 시험의 표징이 되었으며, 1844년 10월 22일은 셋째 시험의 표징이 되었다. 그 세 단계는 9/11, 2020년 7월 18일, 그리고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 때, 물고기가 요나를 입으로 토해내는 바로 그 자리, 곧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를 자신의 입에서 토해내시는 바로 그 자리, 또 그곳은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자리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하는 자리이며, 또한 미국이 용같이 말하는 자리이다. 그런 다음 요나는 2024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부활한 자들의 상징으로서 세상에 마지막 경고를 전한다. 그 영혼들은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죽었고, 이후 에스겔의 강한 군대로 부활한다. 그들의 부활 때 그들은 요나의 표적이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고래 뱃속의 요나, 사자굴 속의 다니엘, 끓는 기름솥 속의 요한은 상징적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9/11의 기름부음에서 에스겔의 강한 군대의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세례로부터 그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그를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는 '오늘은 날씨가 궂겠다' 하니, 이는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때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세대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떠나 가셨다. 마태복음 16:1-4.

기적의 절정은 나사로의 부활이었다.

나사로에게 오시기를 지체하신 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자비의 목적이 있으셨다. 그분은 지체하셨다. 이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완고하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또 하나의 증거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의 가난하고 방황하는 양들인 그 백성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기를 내키지 않으셨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그분은 자비로,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회복자이심을 보여 주는 증거를 그들에게 한 번 더 주고자 하셨다. 이는 제사장들이 곡해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그분이 베다니로 가시기를 지체하신 이유였다. 이 절정의 기적, 곧 나사로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주장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입증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28, 529.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지체하셨고, 나사로는 단지 "절정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찍힌 "인"이기도 했다. 그 본문에서 요나의 표적은 간음하고 악한 세대를 위한 유일한 표적이다. 인치는 과정의 시점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루는 본문, 곧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는 자리에서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어 제자들에게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후속 질문이 나온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더러는 당신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3-15.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제자들을 그분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로 이끄셨지만, 곧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그분은 마태복음 마지막 세 장에 있는 스물세 개의 이정표를 이루실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들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한 걸음씩 드러나야 했다.

다음 기사에서 이 메시아적 이정표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 셋째 천사의 알파 빛

"1846년 가을에 우리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르치며 옹호했다. 그해 초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일찍이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활발히 헌신하던 조지프 베이츠 장로를 알게 되었다. 베이츠 장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베이츠 장로가 다른 아홉 계명보다 제4계명에 더 치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하늘 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나는 속죄소로 덮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두 천사가 궤의 양 끝에서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는 속죄소를 덮고 있었고 얼굴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하던 천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거룩한 율법을 경외심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대표한다고 알려 주었다. 예수께서 궤의 덮개를 들어 올리셨고,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았다. 나는 십계명의 한가운데 있는 제4계명을 보았는데, 그 둘레를 부드러운 광채가 감싸고 있어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규정하는, 십계명 중 유일한 계명이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안식일의 기초도 함께 놓였다." 증언 1권, 75쪽.

### 셋째 천사의 오메가 빛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길을 부패시켜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이 땅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가한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려 했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The Southern Watchman, 1905년 4월 4일.